봉축 맞아 병원·소외계층에 컵등 보시 '훈훈'

김해 길상사, 4월 21일 컵등 및 라면 전달식

2010년부터 사랑의 컵등 제작
지역 병원 및 상가 14곳 전달
직접 복지사각 지대 찾아나서
100가정에 라면 200박스 후원도


김해 길상사가 4월 21일 사랑의 컵등 나누기와 라면탑 쌓기를 통한 소외 이웃돕기를 실천했다.

김해 길상사(주지 혜수)가 부처님의 사랑을 실천해 봉축의 참된 의미를 전했다.

4월 21일 길상사 공양간은 두유와 떡을 곱게 담아 포장을 하는 바쁜 손길로 분주했다. 한편에는 라면탑이 높게 세워져 있었고, 2000개 컵등도 보였다. 전부 실버캐슬요양병원, 조은금강병원, 도립병원 등 총 14곳 병원과 상가에 전달할 선물이다.

이날 전까지 길상사 법당은 기도할 공간 빼고 모두 컵등으로 가득 찼었다. 신도들이 마련한 라면탑도 의미가 특별하다. 그동안 동사무소 혹은 구청을 통해 소외계층에 라면을 전달했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길상사 신도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신도들은 발품을 팔아 100가정을 직접 선정해 라면 총 200박스를 전달했다. 일회성 나눔이 아니라 소외계층의 환경을 계속 돌아보며 함께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다.

신도들이 선물을 들고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 주지 혜수 스님은 신도들에게 나눔에 대해 당부 했다. 혜수 스님은 "환우들께 나눠 드릴 때 눈을 마주하며 진심을 담아 완쾌하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며 "주는 사람이 행복을 더 느껴야 한다. 받아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참다운 공양으로 올리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중생 교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부처님의 제자라면 이 뜻을 오늘 나눔으로 잘 배우고 익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의 당부를 마음에 새긴 듯 병원에 도착한 불자들은 환우들의 병실에 들어가 컵등을 이동식 링거대에 걸어주고 떡과 두유를 전달하며 미소로 합장했다. 환자들도 어느 절에서 찾아왔느냐며 봉축을 맞아 이렇게 와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길상사는 사랑의 컵등을 통해 김해 지역 환우들에게 2010년부터 부처님의 희망과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컵등이 인연이 되어 길상사를 찾고 3년 전부터는 함께 환우들에게 컵등을 전달하는 특별한 불자가 생겼을 정도다.

장경숙(49 · 김해 구산동) 씨는 "2010년 암 선고를 받고 중앙병원에 입원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 하던 중 2011년 길상사에서 컵등을 받고 큰 위로가 됐다"고 웃어보였다.

이어 장 씨는 "병원을 퇴원하면 길상사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뤄졌다"며 "2015년도에는 암이 재발돼 심적으로도 고통스럽고 불면증도 겪었다. 하지만 길상사에서 컵등을 만들며 많은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니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했다.

장 씨는 "정말 열심히 컵등을 준비하고 만들었다. 병원에서 환우들을 만나는데 마음이 남달랐다. 나도 아프지만 다른 환자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쾌유를 기원했다. 큰 가르침을 얻는 시간이었다"고 마음을 전했다.

주지 혜수 스님은 "나눔은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눔을 통해 배우는 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라며 "신도들이 봉축을 맞아 참된 하심으로 나눔공양 올리고 행복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각지서 연등으로 장엄 봉축 물결 '넘실'

기장불교聯 연등문화축제 개최
사상구불교聯 제1회 봉축점등식



부산 사상구불교연합회는 4월 20일 부산서부터미널 르네상스호텔 앞에서 '불기2561년 봉축연등점등식' 을 봉행했다.

4월 23일 **기장불교연합회**(회장 정오)는 기장중학교에서 연등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연등문화축제는 2000여 기장군민들에게 베푸는 나눔 법석으로 각종 문화 체험 및 풍물패 한마당, 기장불교연합회 포교국장 성타 스님의 달마 퍼포먼스로 문을 열었다.

이날 기장불교연합회는 박형건(기장고 · 3) 학생 외 13명에게 연등장학금을 전달하고 불교 인재 동량으로 성장할 것을 당부했다. 연등장학금은 기장불교연합회 소속 사찰에서 십시일반 모았다.

이어진 문화공연에서는 초청가수 공연과 TV, 자전거, 가전제품 등 푸짐한 경품으로 연등문화축제를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기장불교연합회는 부산지역구불교연합회 가운데 유일하게 매년 연등문화축제를 개최해 왔다. 이러한 기장불교연합회의 숨은 저력은 바로 '연합'과 '화합'이다. 아무리 작은 사찰이라도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산불교연합회와 조력하고 부산불교 전체를 위해 활동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회장 정오 스님은 "연등축제에서 등불을 켜는 것은 바로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부처님께서는 중생 모두가 부처라고 가르쳐 주셨다"며 "모두가 부처임을 안다면 극단도 없고 치우침도 없는 평등과 화합의 장엄세계 일 것이다. 오늘 그 장엄의 날을 발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사상구불교연합회(회장 성문)는 4월 20일 부산서부터미널 르네상스호텔 앞에서 '불기2561년 봉축연등점등식' 을 봉행했다. 사상구 봉축연등점등식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 사찰들이 화합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봉축 한마당이다.

이날 탑등 주변에는 행인들이 발길을 멈추고 모여들었고 퇴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시민들도 함께 부처님오신날을 기뻐했다.

점등식에는 사상구불교연합회 고문 천강 스님, 고문 경오 스님, 전 회장 유정 스님, 회장 성문 스님, 수석 부회장 성림 스님을 비롯해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이상갑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장, 송숙희 사상구청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부산무형문화재9호 영산재 시연으로 문을 열어 점등 및 봉축사 봉행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진행했다.

회장 성문 스님은 "이곳에 모인 모두가 동체대비 보살도를 실천해 탐진치에 빠진 중생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길 바란다"며 "우리 모두는 부처님이 나투신 이유를 바로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사랑하신 중생들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젊음을 상징하는 부산 중구 남포 거리에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장엄등과 조형물을 비롯한 1,500여개의 연등이 불밝았다. 특히 이번 중구 지역 점등식은 지난 4월 7일 중구불교연합회 창립 후 연합회가 합심해 개최한 광복로연등문화제여서 의미가 더욱 깊다.

중구불교연합회(회장 종호)는 4월 22일 부산 남포 거리 광복로 입구 안전지대 앞에서 광복로연등문화제 개막점등식을 개최했다. 회장 종호 스님은 "앞으로 저희 중구불교연합회는 연등 문화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해마다 발전하고 중구 대표 슬로건인 '꿈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중구' 로 성장하는데 일조하도록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성미 기자**

분황사 원효성사 열반대재 추모법회



경주 불국사 말사 분황사(주지 성요)는 제1331주기 원효성사 열반대재 추모법회를 4월 25일 경내 7층 탑전에서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요식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관장 종상 스님,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 주지 종우 스님, 이상욱 경주부시장, 박승직 경주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은 경모사를 통해 " '보살도의 정수는 실천과 더불어 함께함' 이라는 이치를 행으로 보이신 성사님의 가르침은 이 시대 우매한 중생들의 이정표다. 갈등을 그치고 화합의 실마리를 여는 단초"라며 "나와 남을 구별하는 다툼 속에서 화해의 눈을 뜨게 하는 지혜의 높은 뜻을 기리며, 저희들은 중생구제의 서원을 다시금 새겨 보살행을 실천할 것"이라고 추모했다.

분황사 주지 성요 스님은 "성사님은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동사섭으로 민중을 교화하셨다. 그 가르침을 자각해 깊은 경외심으로 합장예배 올린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영천불교聯 봉축법요식 · 연등행렬장엄



영천불교연합회(회장 태관)는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법요식 및 연등행렬 행사를 4월 22일 영천금호강변공원에서 봉행했다.〈사진〉

이날 봉축법요식 증명으로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과 고문으로 은해사 관장 돈명 스님,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교구장 돈관 스님 등 사부대중 3000여명이 참석했다.

영천불교연합회장 태관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이웃에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것, 오늘 자신을 있게 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열반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다 불공"이라며 "부처님과 그 가르침, 그 제자들에 귀의하여 한마음으로 정진해 나아가면 낙숫물이 반석을 뚫는 것처럼 마침내 위대한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해사 교구장 돈관 스님은 "중생의 어리석은 집착과 인연은 해탈의 근본이며, 탐진치가 모든 것의 참된 모습을 깨닫는 큰 근본임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 아름다운 꽃과 나무는 만물의 진실 된 모습을 보이는 오늘은 부처님오신날이다.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모든 생명이 진리의 참된 모습으로 태어나는 날"이라고 법문했다.

이어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과 묘각사 덕진 스님, 영지사 성천 스님은 이희명 선화여자고등학교장에게 장학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정읍 내장사, 역대 조사 다례재 봉행



정읍의 명찰 내장사(주지 도완)는 창건주 영은 대종사를 비롯해 내장사에 주석하며 법을 펼친 석전 · 학명 대종사 등 역대 조사들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다례재는 조계종 24교구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해 재곤 스님, 범여 스님, 대우 스님 등 24교구 원로스님들과 내장사 주지 도완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도완 스님은 "원근 각지에서 찾아주신 대덕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내장사에서 법을 펼친 역대조사님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더욱 수행과 전법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내장사는 백제 무왕37(636)년 영은조사에 의해 창건된 이래 학명 스님, 석전 박한영 스님, 매곡 스님 등 역대고승대덕들이 주석하며 법을 펼친 천년고찰이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승병장 희묵스님 등이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장소이기도 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기2561 (2017)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영산불교 현지사

초대 교조 광명만덕 큰스님
제2대교조 자재만현 큰스님

장로원 의장 광영
불교대학학장 일도

교정원장 성광
포교원장 행원
교육원장 대원
감찰원장 일도

춘천총본산 주지 정대
부산분원 주지 보문
고성분원 주지 성범
대구분원 주지 일성

제주제2본산 주지 남전
대전분원 주지 범행
서울분원 주지 지원
일본분원 주지 성도

영산불교 현지사 사부대중 일동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메일 hyunjigung@hanmail.net

•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 033-243-1787
• 제2본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 064-783-5355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7 ☎ 033-681-5515
• 서울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길 18 ☎ 02-453-5953
• 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중앙대로 29길 20 ☎ 053-654-5557
• 일본분원 일본국 야마구찌켄 이와쿠니시 오츠죠 3-3-10 ☎ 81-827-31-1661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